



慶尚南道 副知事 (寄協支部長)
慶南

成海驥씨

◎... 오늘도 가뭄극복대책 수립에 한치의 余念도 가질 수 없는 경상남도
副知事 成海驥씨

기자가 방문한 지난 7월 8일은 한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은 가뭄극복작전
피크의 순간이었다.

◎... 古色이 짙은 道庁건물도 내리지 않는 비를 원망하는듯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과 함께 훌훌 열기에 달아 있었다.



사진 : 成副知事(中央)와 대담하는 崔보사국장(右로부터 2 번째) 河국장(우단), 鄭실장(좌단).

◎... 「요즈음 旱害때문에 전국적으로 걱정이 많습시다만 우리 慶南道民은 끈질긴 노력으로 기필코 이번 旱害를 극복하고야 말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慶南 특유의 강한 엑센트로 말하는 成副知事は 굵은데 안경넘어로 意志와 信念이 넘쳐 흐른다.

◎... 「우리 慶南道는 남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연안어업으로서 양식어업이 주업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행정력의 초점을 수질오염방지에 두고 있지요.

수산청과 해군통제부, 경남도등이 힘을 합쳐 남해안 수질보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경남도지사를 모시고 오염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 위원장에는 崔在顯보사국장이 맡아 지성껏 일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해상공원인 熊무, 거제, 남해의 한려해상국립공원은 경남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絶景인데 이렇게 좋은 閑麗水道를 오염으로 망쳐서야 되겠느냐고 힘주어 力說하기도 -

◎... 그래서 바다에 들어오는 각종 오물, 특히 유류등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수질오염 적조예찰」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는 成副知事は 崔在顯보사



국장의 노력을 極讚하기도 한다.

◎ — 기생충대책에 대해서 한말씀.

「…… 경남도는 낙동강유역의 하류에 있기 때문에 간디스토마 감염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협에 바라는 점은 역시 간디스토마 환자의 조기치료와 보건 계몽을 적극화해서 다시는 감염되지 않도록 민물고기 生食을 금하는 지도 계몽이 시급한것으로 생각됩니다.」

同席한 崔在顯보사국장은 이렇게 결론을 지었다.

「… 남해안 수질보전대책위 같은 것은 他道에 없는 우리道만의 특수 보사정책이지요.

금년에 경남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됩니다. 그리하여 제1차적으로 환경업소 정화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사, 약사를 총동원해서라도 전염병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전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정중히 모실 생각이지요.」

金恭助비상기획관은 건강관리협회의 발족은 晩時之歎은 있지만 時宜에 맞는 적절한 발족이었다고 찬양하고 있었다.



사진 : 집무하는 崔보사국장(上)
기자와 대담하는 崔보사국장(下)

◎… 成副知事は 行政部分에서 순수 慶南通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三千浦시장, 道 공무원 교육원장, 농림국장, 개발국장, 진주시장, 내무국장, 마산시장, 기획관리실장, 경남제2부지사등을 다채롭게 역임한 慶南通, 건강관리는 테니스를 즐기고 약간의 약주가 주특기. 부인 金美玉 여사와의 사이에 2男1女の 다복한 가정.